

‘고용한파’... 취업자 증가폭 줄고 실업률 5년來 최고

12월 취업자수 16만8000명↑... 전월비 증가폭 축소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취업자 감소세 이어져
15~64세 고용률 역대 최고지만... 청년층 20개월째 ↓
실업률 4.1% 5년 만에 최고... ‘쉬었음’ 12만4000명↑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16만8000명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상승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3년째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013년, 제조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취업자 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2024년 12월 비상계업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2025년에는 1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등락폭은 큰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및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

3000명), 제조업(-6만3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2만2000명)과 12월(-2만2000명)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또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000명→-5만6000명)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보건·복지업(28만1000명→22만명)은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24만1000명), 30대(8만3000명) 증가했고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가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5000명(1.2%), 일용 근로자는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7000명(-7.4%) 감소했다.

12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2월 기준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업률 5년 만에 4%대...청년층은 6%대로 치솟아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2020년(4.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12월 실업률은 2021년 3.5%, 2022년 3.0%, 2023년 3.3%, 2024년 3.8%로 3%대에서 움직이다가 2025년 다시 4%대로 뛰었다.

15~29세 실업률은 6.2%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12월 청년층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8.1%를 기록한 뒤 2021년 5.7%, 2022년 5.2%, 2023년 5.5%, 2024년 5.9%로 5%대를 유지하다 2025년 6%대로 치솟았다.

빈준층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12월 실업률 상승 요인에 대해 “30대의 경우 48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

제활동 참가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60대 이상은 연말 노인 일자리 채용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자 감소세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활발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2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는 29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0.9%)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늘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10월 17만3000명, 11월 22만9000명, 12월 27만명으로 확대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4.9%) 증가했다. 쉬었음은 20대(2.3%), 40대(1.3%), 50대(1.9%), 60세 이상(10.7%)에서 증가했고 15~19세(-36.3%)와 30대(-1.7%)에선 감소했다.

/뉴시스



광주 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 전남 고용·취업자 수 동반 부진

광주 서비스업 중심 고용 개선... 전남 농림·자영업 위축 뚜렷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실업률도 함께 올랐으며 전남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처가 제공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지표는 서비스업과 임금근로자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여성 실업 증가가 두드러졌고 전남은 농림어업·자영업 부진이 고용 전반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2월 광주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75만3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고, 15~64세 고용률은 66.5%로 1.2%p 올랐다.

경제활동인구는 80만명으로 1만6000명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1.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감소 등의 영향으로 4.2% 줄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5.9%로 0.6%p 상승하며 고용의 질적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특히 여성 실업자는 42.4% 급증해 실업률이 9.3%까지 치솟았고 남성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

업자가 늘어난 반면, 광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감소했다.

중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일용·임시근로자 등 임금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는 6.2%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광주의 고용률은 60.8%로 소폭 상승했으나 실업률은 3.3%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2025년 12월 전남지역 고용률은 62.8%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95만7000명으로 9000명 감소했고, 특히 여성 취업자가 1만명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광공업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8.5%)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6.7%), 건설업(-5.8%)이 크게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기능·단순노무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늘었으나 일용·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감소해 고용 기반 약화가 확인됐다.

실업률은 6.4%로 0.6%p 상승했으며 여성 실업률은 10.2%에 달했다.

연간으로도 전남지역 고용률은 65.6%로 하락했고 취업자는 7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9.2% 증가해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영길 기자

올해 채용 시장 살아날까... 기업 10곳 중 7곳 “계획 있다”

10곳 중 9곳, ‘수시’로 신입 채용... 경력 선호 유지 “강점 어필해야”

고용 한파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기업 10곳 중 7곳 정도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5.7%가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63.2%)에 비해 2.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73.7%), 100~299인(71.4%), 100인 미만(64.6%) 순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21.1%였으며, ‘미정’은 13.2%였다. 지난해 채용계획이 없거나(23.1%) 미정(13.7%)이라는 응답보다 각각 2%p, 0.5%p 줄었다.

올해 정규직원을 뽑는 이유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64.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26.5%),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26.5%), ‘인력들의 퇴사가 예정돼 있어서’(26%),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7%) 등의 순이었다.

올해 정규직을 뽑는 기업 중 65.6%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력만 뽑는다는 응답은 22.8%, 신입만 채용한다는 답변은 11.6%였다.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들은 채용 직무로 ‘제조/생산’(3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영업/영업관리’(24.1%), ‘R&D’(16.9%), ‘서비스’(9.6%), ‘재무/회계’(9.6%), ‘IT개발/데이터’(8.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사원 채용 방식은 ‘수시’가 63.3%로 대부분이었다. 27.7%는 ‘공채, 수시’ 모두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9%는 ‘공채’로 신입을 뽑는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이 수시채용으로 신입을 뽑는 셈이다.

경력사원은 ‘제조/생산’(28.4%), ‘영업/

영업관리’(22.6%), ‘R&D’(12.1%), ‘IT개발/데이터’(10.5%), ‘서비스’(8.4%), ‘기획/전략’(7.4%)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 채용 방식은 ‘수시/상시 채용’(78.9%)이 가장 많았으며 ‘채용 플랫폼 인재 검색’(22.6%), ‘경력 공채’(19.5%), ‘내부 추천’(13.7%), ‘헤드헌터 활용’(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제조업, 건설업 등 부진이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상승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들의 채용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력 선호 현상은 유지되는 기조인 만큼 신입들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